
2021년 8월 25일 평동교회 수요성서연구 자료 - Ver.1 공동읽기와 묵상

제목 : 레위기 15. 성결법(2) 일상의 거룩

본문 : 레위기 19장 1~10절

(레 19: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담을 그릇은 ...

1. 레위기 18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성결법전(Holiness code)에서 특히 19장은 유대전통에서 “약식 토라”라고도 불릴 정도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규례로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기억하며 따라야할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 강령”(Israel's social charter)으로서 19장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거룩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길 원하셨을까요?
- #.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제일 큰 계명 한가지만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님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막 12:28~31 / 마 22:36~40)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께서도 레위기 19장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 1) 레위기 19장의 내용은 일견 어떤 체계나 통일성 없이 무작위로 나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와 문맥에 따라 살피면 정교하게 배열되고 다듬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표현들을 찾아 그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고로 19장은 1~18절까지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명령과 19~37절까지 공동체적 삶의 다양한 지침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2) 19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과 관련하여 다시한번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거룩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순종과 변화를 요구하면서 공동체적 삶을 통하여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은 무엇입니까?
- 3) 많은 학자들은 레위기 19장의 배경에 십계명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볼수 있는 이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본문에서 찾아보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구분과 함께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근본 정신입니다. 계명과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보십시오. 율법과 계명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 거룩은 사랑으로....

2. 일반적으로 계명이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거운 족쇄나 번거로운 짐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분명 율법과 계명은 삶에 필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본래 의미와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틀과 문구만 지키고 끝내려고 합니다. 권위와 권위주의의 관계에서 그런 것처럼 율법과 율법주의 역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보면 레위기 19장은 다양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풀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석 구석 기록하고 있는 각종 규례들은 어떻게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을 담아낼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왜 19장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사용되었을까요? 잘못하면 어느 영화에서처럼 무한 반복하는 의미없는 문구이거나 제발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식(?)의 염원을 담은 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듣는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1)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각종 상황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종교적인 의미에서 직접적인 신앙의 행위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반면 직접적인 신앙의 행위라고 할수 없는 일반적인 상황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직종을 망라해서 레위기 19장의 규례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2) 레위기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각종 성결 규례들은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원리들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비슷하거나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없을까요?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각종 규례들의 기반과 출발점 그리고 지향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는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들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 3) 레위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지만 오늘 우리교회들이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레위기에 사용되고 있는 강한 어조의 단어들일 것입니다. 과격하고 부정적인 때로는 진보와 좌파들이나 사용하는 단어들을 레위기는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서 저는 사실 내심 혼동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 4) 레위기 19장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방향성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또한 사회적 공평과 정의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오늘날에도 결코 가볍지않은 문제이며 함부로 다룰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적용을 위한 기도 제목 :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타협해 버리고 맙니다. 어리석음과 믿음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게 하소서.

제목 : 레위기 15. 성결법(2) 일상의 거룩

본문 : 레위기 19장 1~10절

(레 19: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 많고 많은 것 중에서 하필이면 거룩이라니.....

19장을 여는 말씀 - 이스라엘 온 회중?

(레 19: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 19: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 4:13)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כָּל־עֲדַת בְּנֵי־יִשְׂרָאֵל

(레 10:6)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와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레 16:17)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출 12:3)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출 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레 11:44)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 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 20:8)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레 20:24)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 20:25)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함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레 20:26)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가장 큰 계명 - 첫째되는 계명?

첫째만 말하면 되는데...

- (막 12:28)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 (막 12:2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 (막 12: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 (막 12: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 (마 22: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 (마 22: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 (마 22: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 (마 22: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반복적인 표현(1) -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 (레 19: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 [3 / 4 / 10 / 25 / 31 / 34 / 36]

나는 여호와이니라...

- (레 19:37)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 [12 / 14 / 16 / 18 / 28 / 30 / 32]

레위기 19장과 십계명

19장의 배경 - 십계명

- | | |
|-----------------------------------|-----------------|
| 1.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마라 (출 20:3) | |
| 2. 너를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출 20:4~6) | 4a |
|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말라 (20:7) | 12 |
|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20:8~11) | 3, 30a |
|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20:12) | 3 |
| 6. 살인하지 마라 (20:13) | 16 |
| 7. 간음하지 마라 (20:14) | 29(20~22) |
| 8. 도둑질하지 마라 (20:15) | 11a, 13 (35~36) |
| 9. 거짓증거하지 마라 (20:16) | 11b, 16a |
| 10. 이웃의 집을 탐내지마라 (20:17) | 17~18(9~10) |

율법과 계명에 대하여

(요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롬 3: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롬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 3: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갈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종교적인 배경

화목제물을 드릴때...

(레 19:4)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 19:5)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레 19:6)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레 19:7)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레 19:8)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 19:30)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정하신 규례와 질서를 따라살아가는 삶을 대표한다

거룩의 표현 방식

모퉁이 남기기(자비로운 추수법) - 앞에는 제물을 남기지 말라고.

(레 19:9)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레 19:10)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퉁이를 남길수 있게 하는 것은 다름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하나님 만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지탱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미래의 불확실함에서 오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지닌 밭의 모퉁이를 남길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남길 모퉁이의 양이 결정된다.

거룩은 제 날짜에 품삯을 주는 것으로 구체화 된다.

(레 19:13)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거룩은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레 19:14)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은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드러난다.

(레 19:17)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
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레 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
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규례의 원리 - 구별

(레 19:19)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
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방 풍습을 따르지마라 - 구별

(레 19:26)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레 19:27)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레 19:28)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 19:31)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율법에서 사랑으로

율법은 사랑으로 귀결된다? ...

(레 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
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 19:32)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 19:33)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레 19:34)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
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